

목양 칼럼

기도의 비상사태

우리는 전 교회적으로 9.11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9.11은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상 사태에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비상사태입니다. 뉴욕예일장로교회가 설립된 지 내내이면 30주년이 됩니다. 1993년에 개척해서 10주년은 막 성장하는 교회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20주년은 2005년 지금의 롱아일랜드로 자체 성전을 마련하여 이전해 온 이래로 안정기를 맞이하는 교회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어느덧 선교지나 뉴욕 교계나 우리 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교회의 이미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어 교회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교회는 더 이상 자신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선교지와 교계와 이웃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중도 뉴욕교회 회장으로 섬기기도 했고, 또 본 교단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단 신학교인 뉴욕장로회신학대학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일교회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큰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기에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9.11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2022년 9월 18일)

내년 5월 21일 창립 30주년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주년 때도, 20주년 때도 교회 일군들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이번 30주년에도 일군들을 세우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시험에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우스 콘서트(2022년 9월 25일)

내년 30주년 때는 창립부터 '예수님 제일'을 목표로 걸어 온 우리 교회가 헨델의 '메시아'를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성경 말씀에 곡을 붙인 대작입니다. 이를 위해 약 1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찬양으로 헌신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솔리스트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시무장로님들이 식사 기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하우스 콘서트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자발적으로 재정 기부를 하시면 아름다운 메시아 찬양예 준비가 될 것입니다.

3. 카네기 홀 연주(2022년 10월 9일)

카네기 홀 연주는 월드밀알 선교협단의 연례 카네기홀 연주에 초대받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월드밀알선교협단이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였습니다. 테러와 범죄로 얼룩진 세계의 중심도시 맨하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기 위해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뜻을 좋게 받아들여 2017년에 동참했고, 또 금년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좀 굳어 있는 우리 목소리도 위명업 하여 내년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예 준비를 힘 있게 시작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4.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예(2023년 9월 10일)

앞에서 말씀드린 메시아 찬양예를 몰로이 대학교 메디슨 강당(550석)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30주년 행사의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년을 은혜로 인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찬양하며 30주년 행사를 마무리 하게 될 것입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주일 찬양 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 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일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미정(T.B.D)	친교실
Mommy & Me	미정(T.B.D)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VISION 2022 EVANGELISM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1권 33호 주후 2022년 8월 14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신경호목사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186장, 540장		
기도	박진두집사	윤희주장로	전용수장로
성경봉독	막(Mark)2:18-22		
찬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김중훈목사		
찬송	630장		
봉헌	다같이		
환영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F.M.A. 성경공부) 8월 17일 오후 8:30

• 기도: 박용녀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이미경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이태호집사 • 2부: 정수영장로 • 3부: 박재우장로

8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김숙이집사 • 3부: 전미경권사 현정원권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창세기2'
-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까지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9·11 기도: 매일 오후 9시부터 9/18 공동의회를 위해 전교우가 함께 기도합니다.
- *주보에 첨부된 북마크에 있는 기도내용을 가지고 9·11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알찬양대축제(10/9, 카네기홀) & 창립30주년 기념 메시아찬양제 연습: 3부 예배 후, 찬양대실
-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문의: 찬양위원회 박재우장로).
- 새가족만남 49&50기 중강파티: 8/14 주일 3부 예배 후, 친교실
- 제자훈련 프로그램 안내: 신청서를 8/28일까지 부목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6기 제자훈련 101: 9/13(화) - 12/20(화) 15주
- 제33기 제자훈련 201: 9/20(화) - 12/13(화) 13주
- Youth Group 여름신앙수련회: 8/14-18, 터스카로라 수양관, 오늘 3부 예배 후 출발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꽃: 오현섭장로
- 사랑의 식탁: 오현섭장로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11am Service).
-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venmo



좋은 친구(막 2:1-12)

난치병으로 알려진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를 들 것에 실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상수단을 썼습니다. 지붕을 뚫고 상을 예수님께로 내린 것입니다. 주거 침입 및 파손 죄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구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친구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르호보암의 실책으로 분열왕국이 됨)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잠 18:24).

1. 친구들의 믿음
 - 1)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 2) 협력하는 믿음
 지금은 무관심의 시대, 이기주의의 시대입니다. 세상을 대항할 만한 성경의 이야기를 준비해야 세상이 감동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사역부서에서, 교회학교에서 재현해야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 3)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애물도 있고,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마귀가 의심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은 수리비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처음 교회 나갈 때 발목 다친 자매가 목사 사모가 된 이야기)

2.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병고침(보이는 것)과 사죄함(보이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죄사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지으면 건강회복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10절)
 *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그날 이후'라는 글이 여기에 좋은 예화가 됩니다.
 * 랭든 길키(Langdon Gilkey)의 '산동 수용소'도 좋은 예화가 됩니다.

[결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기심과 자존심이 살아 갈등과 파벌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아가 항복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 예수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의 결점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침상에 들려 온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가는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교우동정

- 입원: 길희정집사(Northshore Hospital)

행사예고

- 8/26 8월 목장예배
- 8/28 선교회 월례회
- 9/18 공동의회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
- CSN (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 K-Radio AM 1660 (라디오): 매주 수요일 오후 12:54 (목회자 칼럼)